

재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식 조사

* 인구특성변인 : 성, 연령, 지역, 직업, 학력, 소득

문1. 최근 5년 동안 삼성, 현대차, LG그룹 등 총수가 있는 대기업 절반 이상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존 총수 일가 자녀 세대의 핵심 계열사 보유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재벌3세, 4세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 (⇒ 문2번으로)
- ② 긍정적인 편이다 (⇒ 문2번으로)
- ③ 부정적인 편이다 (⇒ 문3번으로)
- ④ 매우 부정적이다 (⇒ 문3번으로)
- ⑤ 잘 모르겠다 (⇒ 문4번으로)

문2. (문1번 ①, ② 경영권 승계 긍정 응답) 귀하가 재벌3세, 4세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 로테이션)

- ① 경영권은 총수 일가의 재산처럼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 ② 재벌 3,4세는 체계적 훈련을 받아 경영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 ③ 총수 일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장기적 성장의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므로
- ④ 재벌 경영권 보호로 외부 투기세력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기타 (적을 것.)

문3. (문1번 ③, ④ 경영권 승계 부정 응답) 귀하가 재벌3세, 4세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 로테이션)

- ① 기업의 경영권은 총수 일가가 사유재산처럼 세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 ② 재벌 3, 4세의 경영 능력이나 자질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 ③ 경영권 승계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 ④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로 회사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 ⑤ 기타 (적을 것.)

문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0.27%입니다. 또한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에서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평균 3.6%입니다. 귀하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극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배구조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 ② 지배구조 개선이 약간 필요하다
- ③ 지배구조 개선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지배구조 개선이 매우 필요하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문5. 재벌 3세, 4세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를 합병·분할하면서 대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액 주주가 피해보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문6번으로)
- ② 약간 동의한다 (⇒ 문6번으로)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문7번으로)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문7번으로)
- ⑤ 잘 모르겠다 (⇒ 문7번으로)

문6. (문5번 ①, ② 이사회 독립성 강화 동의) 귀하는 이사회 독립성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감사위원 등 감독 권한을 가진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 ② 회사 경영을 결정하는 경영이사회와 주주 및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감독이사회를 이원화하여 구성
- ③ 이사에게 소수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
- ④ 소수 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이사회 운영방식 개선
- ⑤ 기타 (적을 것.)

문7. 기업 총수 일가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경우, 총수 일가의 회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문8번으로)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문8번으로)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문9번으로)
- ④ 매우 반대한다 (⇒ 문9번으로)
- ⑤ 잘 모르겠다 (⇒ 문9번으로)

문8. (문7번 ①, ② 횡령 및 배임시 경영 참여 제한 찬성) 만약 기업 총수 일가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회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행유예 기간까지 (5년)
- ②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 (7년)
- ③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5년까지 (10년)
- ④ 유죄 판결 이후 무제한 금지
- ⑤ 기타 (적을 것.)

문9. 기업 총수 일가가 마약, 살인, 폭행 등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총수 일가의 회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문10번으로)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문10번으로)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문11번으로)
- ④ 매우 반대한다 (⇒ 문11번으로)
- ⑤ 잘 모르겠다 (⇒ 문11번으로)

문10. (문9번 ①, ② 중범죄 처벌시 경영 참여 제한 찬성) 만약 기업 총수일가가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회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행유예 기간까지 (4년)
- ②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까지 (6년)
- ③ 집행유예 종료 후 5년까지 (9년)
- ④ 유죄 판결 이후 무제한 금지
- ⑤ 기타 (적을 것.)

문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제사범은 일정 기간 동안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지만,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12. 최근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취업제한에 걸린 기업 총수 일가가 법무부의 재취업 승인을 받아 판결 7개월 만에 해당 기업의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 의견 중 어느 쪽에 좀 더 동의하십니까?

(보기 : 로테이션)

- ① 장기간 경영공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고려했을 때 재취업승인은 적절하다
- ② 재범 우려가 있어 취업을 제한한 기업인을 복귀시킨 것으로 재취업승인이 적절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문13. 기업 총수 일가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시 횡령 및 배임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귀하는 선고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많은 편이다
- ③ 적절하다
- ④ 적은 편이다
- ⑤ 매우 적다
- ⑥ 잘 모르겠다

<인구통계학 문항>

문14.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문15. 연령 - 만()세

문16. 지역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문17. 학력

- ① 초등학교 재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재학
-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재학 ⑥ 고등학교 졸업
- ⑦ 대학(2,3년제) 재학 ⑧ 대학(2,3년제) 졸업 ⑨ 대학교 (4년제) 재학
- ⑩ 대학교 (4년제) 졸업 ⑪ 대학원 재학 ⑫ 대학원 졸업
- ⑬ 기타(서당, 홈스쿨링등) ⑭ 무학

문18. 가구소득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 ⑩ 모름

문1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기업체 경영주 (10인 이상 고용) (⇒ 문20번으로)
- ② 자영업주 (9인 이하 고용)
- ③ 전문직 (준전문직 포함 : 교사, 간호사, 프로그래머 등)
- ④ 관리직 (기업체 부장 이상 임원, 고급공무원) (⇒ 문20번으로)
- ⑤ 사무직 (회사원, 일반 공무원 등)
- ⑥ 서비스직
- ⑦ 기술/기능직
- ⑧ 판매직
- ⑨ 생산직
- ⑩ 농업/임업/어업/수산업/축산업
- ⑪ 군인, 경찰
- ⑫ 학생 (재수생 포함)
- ⑬ 전업 주부
- ⑭ 무직/실업
- ⑮ 기타 (적을 것.)

문20. (문19번에서 ① 기업체 경영주, ④ 관리직) 귀하가 현재 소속된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대기업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 직원 1000명 이상)
- ② 중견기업 (기업 자산 5천억원~10조원 미만, 직원 300명~1000명 미만)
- ③ 중소기업 (직원 300명 미만)
- ④ 기업에 소속되지 않음